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청년 91% 만족

도, 총1935건 신청 받아 13억4800만원 보험금 지급... 2020년 사업 운영시 보장항목 추가 및 보장금액 확대 추진

신체 건강한 현역 군복무 장병인 나경기(가명)씨는 올해 초 겨울 일과 중, 부대에서 빙판을 밟고 넘어지며 발을 세계 굴렀는데, 며칠 간 발가락이 붓고 멍이 심해지더니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계속됐다. 병원 진료를 받아보니 발가락이 골절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씨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병원 치료를 마친 후

의 군장병 보험금 지급 제도를 알게 됐고, 콜센터 상담을 받은 뒤 총 377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경기도가 2019년 하반기 보험금 신청자 815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족도 온라인 조사를 결과, 71.6%가 ‘매우 만족’했고, 19.3%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 91%의 청년이 사업 전반에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109명이 응답했다. 청년들이 가장 만족한 부분은 ‘신청 절차 간편(31%)’, ‘보장 항목 현실적(23%)’ 등이고, 불만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족도 온라인 조사 결과, 71.6%가 ‘매우 만족’했고, 19.3%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 91%의 청년이 사업 전반에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109명이 응답했다. 청년들이 가장 만족한 부분은 ‘신청 절차 간편(31%)’, ‘보장 항목 현실적(23%)’ 등이고, 불만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족도 온라인 조사 결과, 71.6%가 ‘매우 만족’했고, 19.3%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 91%의 청년이 사업 전반에 만족

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보험금은 상해·질병 사망 시 5천만 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 원, 수술비 회당 5만 원 등이며 군 지원 치료비나 개인 실손보험 등과는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11월 이후 경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질병·상해를 당한 경우 지급사

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70-7755-2323)로 문의할 수 있다. 도는 내년에 군복무 경기청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에 ‘정신질환 위료금(회당 50만원)’을 추가하고, 보장금액 중 ‘입원일당’을 확대(일 3만원→3.5만원) 추진해 군복무 청년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진태 기자**

고양꽃전시관, 2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회화 복합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내년 3월 개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이사장 이재준)는 호수공원에 위치한 고양꽃전시관을 ‘회화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꽃 문화 확산과 시민들에게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공사는 총 4,357㎡의 규모로 고양꽃전시관 3전시관과 (구)신한류 홍보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층은 색채감이 돋보이는 서가와 벽면녹화, 회화류가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휴식 장소로 조성된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특화 공간이 마련되고, 꽃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도 운영된다. 코엑스몰 별마당에서 기증받은 9m 높이의 초대형 북트리는 이미 설치 완료되어, 지난 고양가을꽃축제 때부터 관람객 휴게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층에는 꽃 관련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플라워 아카데미와 카페테리아를 상설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재단은 고양시 회화 농가와 연계한 회화 판매장, 지역 작가 초청 북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꽃 소비 활성화 및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박동길 대표이사는 “2000년 개관 이후 전시관 중심으로만 운영되었던 고양꽃전시관이 아름다운 꽃과 책이 있는 고양시민의 차별화된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하여 새로운 고양시 명소를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민희 기자



16일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기공식에서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이희창 시의회의장, 도·시의원 등이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기공식... 경기북부 중심도시 부상

양주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이 드디어 첫 결실을 맺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16일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비(주)(이하 ‘사업시행자’)의 주최로 사업대상지인 남방동 일원에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은 공사 착공에 이르기까지 10여년에 걸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룬 결실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성공적인 사업의 시행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이희창 시의회의장, 도·시의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대하게 치러진 이날 기공식은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오프닝영상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개식선언, 국민의례, 사업진행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기공세레머니,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박건우 양주역세권개발(주)

대표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이 시작하기까지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을 비롯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양주시가 경기북부 거점의 중심도시, 생활감 넘치는 활력도시, 성장 가능성을 갖춘 자족도시, 자연친화적인 환경도시가 되도록 양주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23만 양주시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양주시의 신

성장을 축하하는 기쁨이 가득한 자리”라며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이 정성대에서도 성공적으로 추진돼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긴 시간 끝까지 양주시를 믿고 기다려준 시민 여러분과 사업 추진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성호 국회의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양주의 첫 관문인 양주역 일대 역세권

개발을 시작으로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와 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일지라와 주거, 문화, 교통 인프라를 모두 갖춘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가성비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주역세권개발사업은 양주역 일원의 64만 3921㎡에 행정·업무·주거의 자족기능이 어우러진 미래형 융·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의 보상계약 체결 중이며, 공사 시행은 대우건설(주)에서 책임 준공할 계획이다. **민영희 기자**

수원-경기대, 관광·마이스 산업 발전 협약 체결... 인적교류·공동연구 수행

수원시와 경기대학교는 지난 16일 연태영 수원시장 집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관광·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

력하기로 했다. 국내 유일의 관광전문대학원·관광문화대학이 있는 경기대학교는 수원시와 관광 분야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

류하고, 수원시는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인턴십·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해 관광·마이스 분야 인재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적교류, 공동연구 수행 ▲관광·마이스 산업 관련 정보제공, 연계사업 추진 ▲경기대 관광 관련 전공자 수원시 관광 분

야 정책참여 ▲경기대 학생의 ‘수원시인미스터즈’ 활동, 수원화성문화제 자원봉사 참여 등을 협력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연태영 수원시장, 김인규 경기대학교 총장, 이재곤 경기대 관광문화대학장이 참석하였다. 연태영 시장은 “국내에서 유일하

게 관광 분야 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경기대학교와 업무협약으로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관광·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MICE는 ‘Meeting’(기업 회의), ‘In

centive travel’(포상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회)의 머리글자를 딴 만든 용어로 각종 회의·전시회 개최, 컨벤션센터 운영, 관광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산업을 의미한다. **김진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The Disabled Enterprise Business Center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WWW.DEBC.OR.KR

창업을 꿈꾸는 장애인! 힘차게 도전하는 장애인기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 창업아이템경진대회
- 창업점포지원사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합니다

- 창업보육실운영(전국16개 지역센터,138개 보육실운영)
- 판로지원시스템
- 장애인기업CEO경영혁신교육
- 공공구매제도운영
- 전시회참가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명예홍보대사 **방송인 이수근**

아파트실내 ‘고성능 환기장치’ 초미세먼지 저감효과 톡톡

1시간 가동시 63% 줄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이산화탄소 농도도 낮춰... 정화·환기 기능 모두 구비

서울시가 신·증축, 리모델링 아파트에 설치를 의무화한 ‘고성능 기계 환기장치(전열교환기)’가 실제 초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실내 공기질 개선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간 가동 시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63%, 두 시간 가동 시엔 79%가 줄었다.

또 공기청정기와 달리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유입하는 기능이 있어 발암물질로 알

려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이산화탄소(CO₂) 농도를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고성능 필터를 갖춘 기계 환기장치의 공기정화 성능 실험 결과를 16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성능 실험은 기계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이후 준공된 면적 84㎡(약 32평형) 아파트(공동주택)에서 진행했다. 외기와 공기질을 동일하게 한 후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기계환기장치

를 8시간 가동했다.

시는 올 초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신축, 증축, 리모델링 시 기계환기장치를 비롯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의무 설치 등을 골자로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개정된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터기준(80%)보다 강화된 95% 필터 성능을 갖춘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가 약 32평형(84㎡) 공동주택에서 고성능 필터를 갖춘 ‘기계환기장치’를 한 시간 가동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는 63%(39㎍/㎡→14㎍/㎡), 미세먼지(PM10)는 48%(86㎍/㎡→45㎍/㎡) 줄었다. 두 시간 가동했을 때는 초미세먼지는 79%(39㎍/㎡→9㎍/㎡), 미세먼지는 77%(86㎍/㎡→20㎍/㎡) 낮아졌다. 가동 전 ‘나쁨’ 수준이었던 초미세먼지 수치가 가동 1시간 만에 ‘좋음’ 수준인

0~15㎍/㎡ 이내로 개선된 것이다.

기계환기장치를 2시간 가동했을 때 79%의 초미세먼지 정화 성능을 보여 ‘공기청정’ 기능에 있어서는 공기청정기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기계환기장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이산화탄소 농도를 저감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두 시간 가동 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6%(1.485PPM→1.096PPM), 이산화탄소는 14%(850PPM→730PPM)

저감됐다.

시는 산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것을 넘어 신선한 실외공기를 실내로 유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정화와 환기 기능을 모두 갖춘 고성능 기계환기장치 설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아파트로 한 단계 있는 기계환기장치 의무 설치 대상을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 같은 일반건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류은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한

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서울시 대기환경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 ‘보통(35㎍/㎡)’ 수준을 초과해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2016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이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올해 설치를 의무화한 고성능필터 장착 기계환기장치가 실제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VOCs, CO₂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입증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남 기자

전남도, 2020년 농업분야 국고 6678억원 확보

아열대작물 실증센터·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등 ‘블루 농업’ 탄력

전라남도는 2020년 농업분야 국고 예산에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등 사업비가 포함된 6,678억원을 확보, 청정 전남의 미래 생명산업인 ‘블루 농업(Blue Farm)’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밝혔다.

이는 연초부터 국고건의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 적극적인 국고 확보 활동을 전개한 결과 이뤄낸 성과다.

특히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농업 분야 핵심 3개 사업인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조성’,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 ‘첨단 농업기계화(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등이 반영됐다.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조성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350억원이 지원되는 신규 사업이다. 이번에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비로 13억원을 확보했다. 지구 온난화로 농가단위에서 다양한 아열대 작물이 임의적으로 재배되고 있어 실

증연구와 표준재배기술 정립으로 신규 소득작물을 보급확산하고, 아열대 과일의 수입을 대체할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첨단 농업기계화(무인자동화)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비 7억원이 반영됐다.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480억원을 들여 농업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로봇, 드론, 인공지능 기반의 노지 케네티드 관수 시범단지와, 첨단 농기계(AI) 플랫폼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기농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한 구례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사업은 19억 원이 반영됐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유기농 체험단지, 가공마케팅센터, 생태체험농장, 홍보 및 편의시설을 차질 없이 갖추게 됐다.

이 외에도 가능성 원료은행 구축 및 운영(신규 150억원, 2022년까지) 사업의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비 5억원,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화 지원 센터 건립(계속사업 100억원, 2021년까지)을 위한 생산연구시설 구축비 24억원을 확보했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섬지역 농산물 물류비를 줄이기 위한 실증연구 예산 8억 원도 신규 반영됐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온 해상운송비 지원 교두보가 마련된 셈이다. 또 계속사업인 영산강 III, IV지구의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573억원이 반영돼 매년 반복되는 전남 서남권의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2조 4,00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전국 직불금 예산의 21.3%를 배정받은 것을 감안하면 전남에 2,708억원이 추가 배정될 전망이다. 이를 포함할 경우 전라남도의 농업 분야 국고예산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글로벌 AI컨퍼런스 개최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까. 인터넷 확산, 의료진단 등 우리 생활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는 인공지능(AI)과 함께 인공지능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술 교류의 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17일 AI 양재 허브에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세상(Human Intelligence X Artificial Intelligence)’을 주제로 글로벌 AI 컨퍼런스 ‘AICON 2019’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모든 일정 한, 영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국 인공지능(AI) 분야 대가로 불리는 폴 워보스(Paul Werbos) 유엔미래포럼 이사를 비롯한 해외 3인, 국내 1인의 전문가가 기조강연 연사로 나선다.

AI 및 인터넷 규제에서 다가올 난점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 딥러닝을 활용한 악성 소프트웨어 분석 연구, 인공지능 연구 개발의 방향, 의료진단 분야의 인공지능 예측 신뢰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가 다뤄진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테크(의료 영상 복원, 위성영상 분석) △보안·정책 (AI보안 취약성과 공격사례, AI 시대 도시 미래) △비즈니스(가전분야 AI 활용 사례, 비즈니스 문제 해결 분야 인공지능) 3개 주제별 국내외 전문가 6인의 발표가 이어진다.

컨퍼런스 현장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강연과 패널토론회, 국내·외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데모데이 등 다양한 부대행사

도 운영된다. 올해 개관 3년차를 맞이한 AI 양재 허브의 사업 내용과 주요 현황을 담은 홍보관도 운영된다.

먼저, 딥러닝 기술에 대한 지식 교류와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케라스코리아’와 함께하는 세미나에서는 일반인과 개발자를 위한 강연과 패널토론회가 진행된다. 케라스코리아 운영진과 멤버 6인이 케라스(Keras)라는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기술 집담과 학습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VC 및 엑셀러레이터 100여개 기관을 초청한 ‘데모데이’도 진행된다.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데모데이에는 입주기업 4곳과 허브의 기업성장지원 프로그램인 ‘AI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선발된 6개사까지 총 10개 기업이 참여한다. 기업 발표 및 진행자와의 토론회, 청중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본 행사 시작에 앞서 AI 양재 허브의 새로운 CI를 기념하는 현판식과 서울 인공지능(AI)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전문정책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서울 AI 발전협의회’ 발족식이 진행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적인 석학과 기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행사가 서울의 AI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촉매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양재 허브는 전문가들이 모이는 소통과 교류, 협업의 광장으로서 앞으로도 기업과 인재에 기술혁신 및 글로벌 파트너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남 기자

LG전자 ‘리얼 8K’ TV, 美 소비자기술협회 ‘8K UHD’ 인증 획득

‘화면 해상도’ 요건인 화소 수 및 화질 선명도 50% 이상 모두 충족

LG전자의 2020년형 8K TV 전 제품

Technology Association, 이하 CTA)의 품이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onsumer

중 해당 인증을 획득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ICDM)의 표준규격을 준용해, ‘화면 해상도(Display Resolution)’ 요건으로 △3,300만 개 이상의 화소 수 △최소 50%의 화질 선명도(Contrast Modulation, CM)를 명시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신호 입력, 업스케일링 등의 기준도 포함했다.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8K UHD’ 인증 로고가 다양한 브랜드의 8K TV가 지속 늘어나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LG전자가 올해 출시한 8K 올레드 TV와 8K LCD TV는 모두 화질 선명도(CM) 값이 90% 수준으로, 선명한 8K 해상도를 구현한다. 특히, 세계 최초 8K 올레드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는 해외 주요 매체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이 제품을 ‘2019년 최고 발명품’으로 선정한 바 있다.

미국 IT 매체 ‘톰스 가이드(Tom’s Guide)’는 “지구상 최고 TV”라며 “세밀하게 표현되는 영상이 매우 사실적이어서 만져보고 싶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창은 기자

2001년 3월 15일 창간 (주)아시아일보	아시아일보	등록번호 서울 가00205(일간) 2000년 11월 22일
발행·편집인: 권희민 편집국장 겸 총괄사무: 김용수 인쇄인: 현재오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99 스타빌리 1304호 Tel. (02) 588-2996 / FAX (02) 855-8784		
편집국 (02) 588-2996 편집부 (02) 588-2996 정치부 (02) 855-8781 경제부 (02) 855-8782	사회부 (02) 855-8783 문화부 (02) 855-8781 광고국 (02) 855-8782 총무국 (02) 855-8781 고충처리위원회 (02) 855-8781	제2사회부 (02) 855-8783 문체부 (02) 855-8782 독자재무 (02) 588-2996 광고문의 (02) 855-8782
E-MAIL: nasiai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asia일보.co.kr 구독료 1만5천원/1부 700원 본지는 언론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지킵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너 참 잘했어’라는 말을 들려주세요”

좋은 삶, 편안한 관계를 위한 자기 이해의 심리학

오늘 참 괜찮은 나를 만났다

〈세바시〉 〈성장문답〉 SERICEO 명강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창순 박사가 들려주는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축을 세우는 법

“내가 나에게 사랑을 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특하면 불필요한 자책과 자기비하에 시달릴까? ‘어떻게 자존심을 지키면서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사랑하고 싶다...’ 누구에게나 절실한 위로와 칭찬, 이해와 수용에 관한 이야기.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욕구와 일상에서 마주치는 문제 상황을 다루기 위한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조언. 건강한 자존감을 기초로 편안한 인간관계, 나아가 더 성숙한 삶에 이르는 길!

양창순 |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전문의, ㈜마인드앤컴퍼니 대표, 양창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주역과 정신의학을 전공한 논문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업 강연, 대인관계 및 리더십 컨설팅, 집필과 칼럼 기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감백하게 산다는 것> <나는 가질하게 살기로 했다>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 저술.

효성중공업, 美에 초고압변압기 첫 생산기지 확보

테네시주 소재 미쓰비시 공장 인수... 현지 전력기기 수요 증가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대응 차원

효성중공업이 세계 최대규모인 미국 전력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첫 현지 생산 기지를 확보했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미쓰비시의 초고압변압기 공장(MEPP, Mitsubishi Electric Power

Products, Inc.)을 4,650만 달러(약 5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테네시 공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내철형 초고압변압기를 본격 생산하게 된다.

내철형 초고압변압기는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변압기시장 수요의 95%를 차지하는 제품이다.

이번 투자는 △ 미국의 전력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커지고 있는데

△ 전력 인프라의 노후화로 전력기기 교체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미국이 국내 주요 초고압변압기 업체들에 40~6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현지 생산기지를 갖춰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다.

미국 초고압변압기 시장은 약 2조 원 규모로 효성중공업은 2001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미국의 주요 전

력회사들과 장기적인 파트너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테네시 공장 인수로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함에 따라 고객들에게 한층 안정적으로 제품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

미국 테네시 공장 가동이 본격화

되면 국내 주력 사업장인 창원공장도 글로벌 기술개발센터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유럽 등 프리미엄 시장과 중동·아시아 시장 제품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 송수안 기자

초역세권에 개발호재까지... '검단신도시 모아엘가 그랑데' 12월 중순 오픈 예정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지하철 5호선 추진 등 교통호재 잇달아

우수한 광역교통망과 풍부한 생활인프라 갖춰 '관심집중'

하반기 검단신도시 내에서 최고의 입지로 주목

전통적인 부동산 격언 중 '길을 보면 부동산이 보인다' 라는 말이 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주위에 형성된 교통환경에 가치가 평가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역세권 아파트들은 분양시장에서 부동산 분위기와 상관없이 연일 인기가 높다.

실제로 가격상승률에 있어서도 역세권 아파트가 강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사가 따르면 지난 9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거래된 역세권과 비역세권 아파트도 큰 가격 차이를 보였다. 역세권 아파트인 '주안더월드스테이트'는 전용면적 84㎡(12층)가 3억 7,70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에 비역세권

아파트인 '인천주안한신휴플러스'는 같은 전용면적 84㎡(10층)가 2억 4,413만원에 거래되며 같은 지역에서도 가격이 큰 폭으로 벌어졌다.

역세권 단지들은 분양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송도 더샵센트럴파크 3차(206.1대1)',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미움(203.8대 1)', '빌리브 스키(135대 1)', '동대구역 우방아이유엘(126.7대 1)' 등 올해 1~9월 최상위 청약경쟁률 단지 중 4개 단지가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춘 역세권 아파트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역세권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이라며 "특히 서울이 아닌 수도권 경우 지하철 노선

이 다양하지 않아 역세권 단지의 희소성은 수도권 지역에서 더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서구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검단신도시 모아엘가 그랑데'도 초역세권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총 5개동 510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됐다. 전 세대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으며 일부세대에는 테라스설계가 적용된다.

초역세권 아파트 모아엘가는 향후 인천지하철 1호선 신실역과 500m 이내로 인접하고, 또한 지하철 개통 완료 후 6분이면 김포공항역에 도달할 수 있고, 인근 계약역에서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 서울역까지 30분대로, 9호선을 통해 여의도까지 34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검단신도시에 5호선이 연장되면 보다 더 좋은 서울교통망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 환경도 좋다. 단지와 바로 접한 원당대로의 경우 향후 원당~태리간 광역도로(2021년 개통 예정)가 개통되면 올림픽 대로까지 1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고 강남권까지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길 건너에 중심상업지구와 특화계획구역인 넥스트 콤플렉스까지 건립될 예정으로 입주 후 만족도 높은 주거생활이 기대된다. 기존 풍무지구의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현재 위치한 대형마트시설까지 이용 가능해 수준 높은 인프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단신도시 모아엘가'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29번지에 건립되며 마린하고 12월 중순 개관할 예정이다. ■ 배용환 기자



'검단신도시 모아엘가 그랑데' 조감도.

KB국민은행 'Liiv M' 본격 시행... 금융·통신 융합한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

KB국민은행이 16일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 'Liiv M'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Liiv M'은 11월 고객 대상으로 베타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그랜드 오픈을 통해 고객 불편 개선과 동시에 더욱 풍성한 혜택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랜드 오픈 이후에도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날부터 'Liiv M'은 △셀프

개통 △친구결합 요금할인 △잔여데이터 환급 △실시간 데이터 및 요금 조회 기능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먼저 모바일 앱을 통해 완전한 비대면 '셀프개통'이 가능하다. 기존 통신사 가입 시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는 등의 불편함을 없앴다. 또한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직장동료 등 누구나 결합해 요금을 할인받는 '친구결합 서비스'도 제공된다. 1인 가구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존 통신사 가족 결합 할인

시 대리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미사용 데이터를 100MB 당 100포인트리로 돌려주는 '데이터 환급 서비스'도 선보인다.

대화형 뱅킹서비스 앱인 리브톡톡(Liiv TalkTalk)에서는 'Liiv M' 실시간 잔여 데이터 및 요금 조회, 월별 통신요금 조회가 가능해진다. 고객은 별도 통신앱 설치 없이 금융업무로 사용 중이던 리브톡톡에서 통신업무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

의성을 높였다. 이에 더해 모바일 앱에 '로밍서비스' ON/OFF 기능을 구현해 해외여행 전후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Liiv M은 금융과 통신 융합 서비스도 일부 선보인다. 'USIM 보관서비스'는 안전한 저장소인 USIM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며 리브톡톡, 리브 등의 국민은행 앱 본인인증 시 필요한 정보가 자동입력되어 고객의 데이터 입력을 간소화 해준다. 또한 27일부터는 고객이 통화 중에 ATM

출금이 제한되는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도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자가 사실 확인이나 신고를 못하도록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착안했다.

한편 USIM 내 KB모바일인증서 탑재, 요금제 다양화, 자급제폰 확대 등의 추가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Liiv M 광고를 보고 쿼츠를 맞으면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는 '방탄

소년단과 함께하는 Liiv M 쿼츠 이벤트'를 1차로 진행했으며 16일부터 20일까지 동일한 이벤트를 2차로 진행한다. 또한 16일부터 25일까지 Liiv M의 요금제를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면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모바일쿠폰을 100% 증정하는 'Liiv M으로 확! 바뀌는 통신요금 확인하고 스타벅스 커피쿠폰 받자!'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벤트는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스타뱅킹, 리브, 리브톡톡을 통해 확인 및 응모할 수 있다.

더불어 Liiv M LTE 11GB+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기본료 반값(2만2,000원) 할인을 제공하는 'Liiv M으로 바

꾸면 2020년 통신비 누구나 반값!' 이벤트가 16일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이벤트 기간 중 가입한 고객의 경우 제휴카드 사용 및 KB카드로 통신비 자동이체 신청 시 6개월간 최대 2,000원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이번 그랜드 오픈을 기념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그랜드 오픈을 준비하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집중했으며 앞으로도 고객 혜택을 확대하고 더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예슬 기자

CHANGE UP!

소상공인이 잘 사는 나라
소상공인을 위한 리부트 솔루션
다시 도전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일어설 용기를!

재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지원대상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및 폐업자(20세 이상)

지원내용
의식 전환 및 힐링교육, 업종별 전문교육 등 업종전환에 필요한 종합교육 및 멘토링

홈페이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edu.sbiz.or.kr)
<2018 재창업패키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북구, 취약계층 스포츠강좌 수강 지원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매월 1인 1강좌 당 8만원 범위 내... 27일까지 신청

강북구가 취약계층 청소년·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2020 스포츠강좌 수강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은 체크카드 형태로 된 이용권을 발급하고 지정 시설에 등록하면 강좌비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기존 장애인스포츠강좌·통합문화 이용권이 있을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강북구에 거주하면서 만 5~18세 자녀를 둔 가정이면 이달 2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를 활용하거나 주소지 등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되 기존 이용기간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결과 는 2020년 1월10일 신청인 휴대전화

메시지로 통보된다. 대상자에게는 다음연도 2월부터 9월까지 매월 1인 1강좌 당 8만원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지급한다. 지원금은 이용권 가맹 체육시설 수강신청 시 사용할 수 있다.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모바일 웹 등 온라인으로만 지출해야 한다.

박경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스포츠복지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꿈나무들의 소질개발 기회도 될 것"이라며 "보호자들께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관 기자**

성동구, 교육특구 재지정

높은 수준 교육환경 조성 위해 적극 투자

성동구가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융복합혁신 교육특구로 '재지정'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으로 구는 이로써 지난 2015년 최초로 지정된 이후 총 9년 간 교육특구로 운영된다. 이번 재지정은 2015년 특구 지정 이후 공교육 강화와 글로벌·역사·문화·생태 체험교육 등 창의체험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특화 사업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가능했다. 구는 2015년 교육특구로 지정된 이후 2019년까지 총 1,8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래인재육성 교육사업 △전통역사체험 교육사업 △생태문화체험 교육사업 △글로벌시민역량강화 교육사업의 4개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23개 세부사업을 추진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금고교, 도선고 등 일반고 2개교를 신설했고 2014년 25억원 수준이었던 학교 교육경비를 2019년 55억원으로 서울시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특구지정 5년 동안 215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했다. 노후한 학교 화장실의 현대화, 체육관, 급식실, 운동장 등 학교환경을 개선하였고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슬리핑차일드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했으며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해 9개 초등학교의 어린이 안전 취약지역을 발굴하고 성동형 리빙랩 방식

을 적용해 통학로를 개선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총출력 쟁겨왔다. 이 외에도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를 비롯한 11개의 권역별 체험학습센터 운영과 연인원 7만 여명의 학생들이 참여 한 100개의 온마을체험학습장 운영,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과 진로교육, 생활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관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의 운영 등으로 아이에서 어른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구는 교육특구 지정에 앞서 전체 197개의 지역특구 중 '2019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상금을 수상하는 영예도 얻었다. 이번 교육특구 재지정에도 2016년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인증 및 올해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교육분야에서 명실공히 3관왕을 차지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향후 4년 동안 503억원 투자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이어가나겠다"며 "지금까지 성동구가 교육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고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교육 때문에 성동구에 사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주민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관 기자**

동대문구의회, 제292회 정례회 폐회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433억7210만8000원 심사... 조례안 11건 원안가결, 2건 보류, 2건 폐지

동대문구의회는 지난 12월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11월27일부터 12월13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2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11월2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29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2019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 청취의 건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둘째날인 11월28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행정기획위원회는 손세영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범일 의원이 발의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음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누리소통망서비스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과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 폐지에 따른 대안발의) 총 7건은 원안가결하고, 전범일 의원이 발의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건은 보류하였으며, △동대문구 창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동대문진화 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하고 △구립 청소년독서실 위탁운영체 선정 결과 보고의 건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 △공립형 동대문지역아동센터 위탁 운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서 11월29일부터 2020년도 동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에 들어간 동대문구의회는 12월5일까지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했고 12월 6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동대문구 예산안에 대하여 편성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당초 12일에서 13일까지 일정을 연장하면서 면밀히 심사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동대문구 일반회계 6,250억원 중 22억7,3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183억 7,210만8,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기금은 277억4,287만7,000원 중 5,910만원을 삭감해 각 기금별 예치금으로 계상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13일 오

김창규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내년도 새해 예산안은 낭비적인 요소나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고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도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통과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구민을 위해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올 한 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다"라고 말했다. **■이상관 기자**

서대문구,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평가 2년 연속 우수상

키즈클럽플러스 사업·열린육아방 확대·아토피 특화 어린이집 운영 등 호평

서대문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보육정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안전관리, 보육서비스 질 관리, 공공보육 확충, 자체 특수시책 개발 등 7개 분야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올 한 해 각 지

자체가 추진한 보육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구는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

을 위해 자체 추진한 △친환경 우수 식재료 구매비용 지원 △비담입 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청소와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키즈클럽플러스 사업 등이 호평을 받았다. **■이상관 기자**

특히 올해 4월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장난감 대여와 열린육아방 확대, 아토피 특화 어린이집 운영을 비롯해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 서대문구청 시간제 보육, 보육교직원 제2도 힐링 연수, 아빠 육아골든벨 개최 등의 차별화된 보육서비스가 주요한 수상 사유로 꼽혔다. **■이상관 기자**

양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위원장 서병완 의원, 부위원장 임준희 의원 선임

양천구의회가 2020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지난 13일 열어 위원장에 서병완 의원, 부위원장에 임준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양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병완 위원장, 임준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임정욱 의원, 조진호 의원, 공기환 의원, 유영주 의원, 이인락 의원, 정순희 의원, 윤인숙 의원 등 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18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1차 심사 후 제출할 수 있다. 관료료는 무료다. 기타 문의는 노인청소년과(02-2127-4245)로 하면 된다. **■이상관 기자**

(일반회계 6,600억, 특별회계 412억)을 양천구의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예산안은 9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심의를 진행했다. 서병완 예결위원장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넘어온 예산안을 예결위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심사숙고 세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양천구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5일에 개최한 양천구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는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후,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김용수 기자**

동대문구, 연말연시 뮤지컬 선물... 비트박스·비보잉 등 선보이는 '셰프' 공연

연말연시 공연 관람을 계획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동대문구가 뮤지컬 공연을 선물한다.

동대문구가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21일 오후 1시30분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뮤

지컬 '셰프:비밥의 새로운 이름' 공연을 상연한다. 뮤지컬 '셰프'는 비빔밥, 슌시, 피

자, 치킨누들 등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군무, 슬랩스틱 코미디, 비트박스, 비보잉 등으로 표현하는 역동적인 공연이다. 20일까지 구 홈페이지(www.ddm.go.kr)→'온라인 접수'를

통해 선착순 600명(가족포함)을 모집하며, 만 3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기타 문의는 노인청소년과(02-2127-4245)로 하면 된다. **■이상관 기자**



당신의 물은 안녕하십니까?

물동이 인 어머니는 추억이지만 물 찾는 우리는 미래입니다.



아시아일보 생활속 물 절약 캠페인 2019년 7월18일~12월31일

생활속 물 절약 방법

- ☞ 화장실에서: 비누칠할 때 물 잠그기, 변기수조에 절수기 설치하거나 PET 병 넣기
- ☞ 세탁할때: 빨래는 모아서 한번에, 적정 횟수로 행균하기, 합성세제 정량 사용하기
- ☞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수도 잠그기, 주방세제 사용 줄이기, 절수형 수도꼭지 사용하기
- ☞ 욕실에서: 양치컵 사용하기, 샤워시간 줄이기, 비누칠할 때 물 끄기, 절수형 샤워헤드 사용하기

양천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수거 실적 따라 월 200만원 이내 보상금 지급... 31일까지 참여 주민 모집

양천구는 불법광고물을 없애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및 유해 명함을 수거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행자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동광고

물을 없애기 위해 2014년부터 운영 중이며 올해는 총 186만여 건(11월 기준)의 광고물을 수거하기도 했다.

참여자가 수거한 광고물과 정비 전·후 증빙을 제출하면 월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수거보상비용은 일반형 현수막은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이며 첩지류의 경우 벽보 및 유해명함

100매당 2,000원에서 5,000원을 지급 받는다. 단, 첩지류만 지급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은 50만원 이내이다.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20세 이상 주민이면서 △연월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를 소지, 촬영이 가능하고 △한글 및 워드프로그래밍을 쓸 수 있는 주민(현수막 수거 참여자만 해당)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공공근로, 마을지킴이 실버봉사단 등 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제외된다.

17일부터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 사본·반명함판 사진·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각 동별로 3명씩, 총 54명의 주민

은 불법유동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할 때 지켜야할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활동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와 함께 주민들의 참여로 양천구의 거리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양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용수 기자

안양천 눈썰매장 20일 개장

튜브리프트 갖춰... 다양한 부대시설도 마련

구로구가 도심 속 겨울왕국 '안양천 눈썰매장'을 오는 20일 개장한다.

구는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겨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안양천 눈썰매장을 내년 2월2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양천 눈썰매장은 안양천 우안 둔치 오금교 아래 인라인스케이트장에 7,600㎡ 규모로 조성됐다.

눈썰매장은 온가족이 함께 스키를 느낄 수 있는 일반용 슬로프(6세 이상)와 경사가 완만한 유아용 슬로프(36개월 이상 6세 미만)로 구성됐다. 일반용 슬로프에는 썰매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튜브리프트도 갖췄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충돌 시 충격이 적은 튜브형 썰매가 사용된다.

구는 슬로프 외에도 빙어잡기, 송

어맨존잡기 겨울 뉴시터와 컬링, 나무썰매를 만들어 보는 이색 체험장도 꾸렸다.

미니 바이킹, 미니 기차, 디스크광 등 어린이 놀이기구와 출출한 속을 달래는 먹거리 부스 등 부대시설도 마련했다.

이용시간은 운영기간 동안 휴일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입장료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구분 없이 1인당 9,000원이다. 단, 36개월 미만 아동은 무료다. 놀이기구, 체험장 이용료는 별도.

할인 혜택도 있다. 구로구민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입장료 3,000원이 할인되며 장애인과 동행1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어르신은 입장료가 50% 감면된다.

■김용수 기자

종로구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 개최

미래 세대까지 모두 포용하는 '지속가능발전도시 종로' 조성 의지 표명

종로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지속가능발전도시 종로'의 조성 의지를 알리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

구는 이번 행사에서 환경·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종로구의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기본 계획을 알려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이끌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은 김병한 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종로 정책참여단, 유관기관, 환경감사단,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1부 비전선포식에서는 △주민참여로 만들어진 기본 계획 수립과정 영상 상영 △비전 및 기본 계획 발표 △구청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참여단 대표의 비전 선언문 낭독 △

주민, 기업, 공직자 대표의 지속가능종로 실천 다짐을 진행해 지속가능발전도시 조성 의지를 알린다.

이어지는 2부 공감토크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이야기'를 주제로 김영종 종로구청장, 운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지속가능 종로'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UN에서 채택한 인류의 보편

적 발전 전략인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

구는 지난 해 5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올해는 종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과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지속가능종로 정책참여단과 지

속적인 논의를 했다.

그 결과 구는 '역사와 자연을 품은 내일이 더 행복한 지속가능 종로'를 비전으로 확립하고, 구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을 핵심원칙으로 삼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와 세부목표 55개를 설정했다.

특히 구는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 도시 △누구나 일하기 좋은 도시 △더불어 상생하는 도시 공간 △다양한 세대를 위한 자원 보전 △기후 변화 대응과 숨쉬기 편한 종로를 지속가능발전 5대 중점 목표로 채택하는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계획에 초점을 맞췄다.

■이상관 기자

강서구, 겨울철 월동 모기 방제사업 나서 친환경 약품 사용해 숨어 있는 유충 제거

강서구는 17일부터 추위진 날씨를 피해 특정 공간에 서식하는 모기의 특성을 활용한 겨울철 특별 방역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가 겨울철 방제활동에 힘을 쓰는 이유는 모기 유충 한 마리를 성충으로 부화하기 전에 제거하면 500마리의 모기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수를 감소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2인 1조로 방역반을 구성해 지역 내 314곳 아파트단지·대형병원·지하철역의 집수조·정화조 등 주요 모

기 유충 서식지를 점검하고 유충 살충제 살포와 살충분무 소독을 한다.

방역에 사용하는 약품은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약품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모기 유충의 서식지로서 주민으로부터 신고 받으면 방역소독 전담반을 출동시켜 추가 방역 활동을 하여 방제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모기 유충 발생지 신고는 보건행정과(02-2600-5955)로 하면 된다.

■김용수 기자

마포구, 망원동 골목 특색 살린 관광지도 제작·배포

디자인자료 전면 공개해 지역 상인들 무료로 변형 사용 가능한 '공유지도'

마포구는 망원동 골목 특색을 살린 관광지도 제작·배포하고 해당 지도 일러스트 파일을 전국 최초로 주민과 공유하는 '망원동골목골목탐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서울디자인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유지도 제작

프로젝트를 본격 진행하게 됐다. 망원1동 주민센터에 파견된 청년 디자이너가 마을 곳곳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주민워크숍, 상인면담 등을 통해 각종 자료를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인기명소로 떠오른 망원동 일대의 맛집, 카페, 소품샵 등을 아끼지 않은 일러스트와 함께 소개하

는 '망원동골목골목탐험' 지도 제작을 지난달 마쳤다.

지도는 휴대가 편리한 엽서형과 리플릿형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 망원1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지역 상점에 배부해 방문 관광객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지도에는 맛집, 카페, 소품샵 등의

전화번호와 운영시간, 재료표이 가능 여부 등을 표기하고 친구와의 망원동 첫 방문, 반려견과의 가족코스 등의 추천 코스도 실어 관광객이 편하게 망원동을 둘러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QR코드를 통해 망원동 주민센터 누리집에서 지도를 내려 받아 인쇄가 가능하도록 연계해 편의성을 높였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로 제작된

지도는 자체적으로 지도를 제작하고 싶은 지역 상인들에게 일러스트와 글자체 등 디자인 파일을 전면 공개함으로써 무료로 자료를 편집해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유지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망원동골목골목탐험' 지도는 망원1동 주민센터 누리집(mangwon1.mapo.go.kr)에서 열람 및 내려 받기가 가능하며 망원동 지도 제작을 희망하는 경우 전자우편(ppoya@mapo.go.kr)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용수 기자

금천구, 새벽일자리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모집

금천구는 겨울철을 맞아 이른 새벽 일지리를 구하러 나온 일용직근로자들이 따뜻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인 '새벽 일자리 쉼터' 운영 근로자를 공개채용한다.

새벽일자리쉼터는 직업소개소 20여개소가 밀집해 있는 독산고개 새벽인력시장에서 오전 3시부터 7시까지 운영된다.

신청기간은 2020년 1월2일부터 15일까지며, 만 19세 이상 새벽시간 근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증빙서

류와 함께 구청 9층 일자리창출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채용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2020년 1월 22일에 구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채용된 근로자는 2020년 2월부터 매일 새벽 3시부터 오전 7시까지 △쉼터설치 △음료제공 △주변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 5일 근무에 보수는 일급 5만 7,200원(월급 154만원, 월평균 세전 금액)으로, 2020년 금천구 생활임금(시급 1만307원)과 새벽근무에 따른 임금가산(3시간)이 반영된 금액이다.

■김용수 기자

도봉시민햇빛발전조합 '햇빛 모아 이웃에 나눔' 실천... 발전수익금 200만원 성금으로 전달

도봉구는 지난 11일 도봉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도봉시민햇빛나눔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한 발전수익금 200만원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2019년 희망은 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이웃돕

기 성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봉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은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봉사를 위해 지역주민 1,100여 명이 결성해서 만든 전국 최초 시민주도형 햇빛발전사업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

합이다. 특히, 지난 12월5일에는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대응 활동 등 지방자치 환경행정 실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 분야로는 최초로 '2019 서울시 명예의 전당, 서

울의 얼굴'에 선정되어, 서울시청 시민청 연결통로 벽면에 부조가 현역 되었다.

도봉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이 조합비를 출자하여 2014년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 제1호

기 건립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햇빛발전소 보급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현재 총 4호기 75KW의 시민햇빛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매년 햇빛발전소의 수익금 200만원을 지역 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꾸준히 기탁하며 지역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상관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가는 길

최고의 안전으로 신뢰받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약속합니다.

동두천 소요산이 확 달라집니다

市, 당일코스서 숙박형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 국내 최대·최고급 호텔형 카라반 100여대 유치

동두천시는 대표적인 관광지인 소요산을 변화시키기 위해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인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사업'의 계획을 밝혔다.

소요산은 아름다운 단풍과 잘 정비된 등산코스로 1981년 동두천시 승격이후 현재까지 매년 1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데도 관광컨텐츠 및 숙박시설이 전무하여 노년층 위주의 당일코스만 이루어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소요산이 이제는 노년층의 당일관광에서 기업·가족단위 숙박 체류형 힐링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해 '소요산관광지 확대

개발사업'으로 새롭게 단장될 예정이다. 기본 골격은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고 지역관광과도 연계한 공원, 사계절 축제와 이벤트가 있는 특별한 모험, 울창한 숲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 힐링 공원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본 사업과 더불어 번듯한 숙박시설이 전무한 소요산 관광지에 레저 산업의 확산에 발맞추어 국내 최대, 최고급 자연친화적 호텔형 카라반 약 100여대를 유치코자, 시 재정과 운영활성화를 고려하여 민간사업자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9년 12월 10일 제안평가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매출액 13조에 달하는 재무적 출자자 미래에셋대우(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시행사 세한건설(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운영참여업체 또한 전년도 매출액 678억원의 공무원·기업 복지가드 운영사인 이지웰페어와 222억원의 살레코리아(주)라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전문 운영사로 선정하는 등 건설한 기업의 선정으로 사업추진이 확실시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사업은 단순한 공원조성에서 벗어나 소요산 일대를 친환경 힐링 체류형관광지로 변화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소요산의 공원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매력적인 응대 시설이 갖춰지면서 연 인원 11만명 체류하는 국내 최대·최고급 호텔형 카라반을 유치함으로써 차별화된 명품 체류형 관광 명소화를 통해 동두천시 이미지 제고와 시 주요 사업인 보산동 관광특구, 양키시장, 5060청춘로드, 어린이들의 사계절놀이시설인 놀자숲 등 시가지 전역의 주요 관광코스와 연계한 시너지효과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 동두천시가 숙박·체류형 도시로 변화하면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최종진 기자

안산 단원구 으뜸경로당 6개소 선정

대부동 흥곳경로당 등 6개소 선정... 현판·시장 표창·운영비 부상

안산시 단원구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우수 경로당 선정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 경로당 6개소를 ' 으뜸경로당'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선정하는 ' 으뜸경로당'은 평가를 위해 단원구 관내 경로당 141개소 가운데 신규 등록된 8개소를 제외한 13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서류 점검, 민원발생, 현지 방문 점검 등으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상 흥곳경로당 ▲우수상 삼익경로당, 한화꿈에그린 경로당 ▲장려상 기와골경로당, 귀향로 서류 점점, 민원발생, 현지 방문 점검 등으로 진행했다.

이 수여된다. 단원구는 으뜸경로당 선정으로 경로당의 투명한 재정 운영, 회원 간 화합 등의 모범운영 사례가 돼 주변의 다른 경로당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만균 단원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경로당의 기능 혁신을 유도해 어르신 복지사업 활성화와 노인복지 향상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필영 기자

광명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폐회... 예산안 9308억 확정

광명시의회(의장 조미수)는 1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9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지난달 20일부터 2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과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31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올해 집행부의 업무현황 및 사

업 추진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06건을 시정·개선요구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1개 사업에 대해 총 45억 8894만 8000원을 삭감했다. 이로써 2020년도 광명시 예산은 올해 본예산 8212억원보다 1096억원 증가한 9308억원이다. 아울러 박성민, 이주희, 안성환, 이일규, 제창록, 한주원, 이형덕 의원은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문제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조미수 의장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 준 의원 및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광명시의 합찬 도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덕우 기자

수원시의회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 사회복지시설 후원물품 전달하며 격려

수원시의회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은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도담도담 정신재활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주식회사 BK D&C(대표이사 안재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 의뢰한 성품을 전달하고자 이

루어졌으며, 조 위원장은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시설 관계자 및 입소자들과 담소를 나누며 연말연시 안부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석환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외된 이웃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분들

에게 감사드리고,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연말을 지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담도담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여성들이 함께 사는 공동생활가정으로 입소자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독립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김진태 기자

양주시, 청년동아리

네트워킹 데이 개최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13일 시청 내 청년센터에서 첫 번째 '청년동아리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청년동아리 네트워킹 데이는 취·창업과 자기계발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동아리들의 활동을 격려하며 내년에 추진될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행사에는 로봇제작, 공예제작, 문화콘텐츠 기획, 청년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5개 동아리,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어려운 청년 고용의 현실과 현재 청년들의 관심사, 향후 동아리 운영 방향 등에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시 관계자는 "행사에서 2020년 청년센터 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동아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미 있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앞으로도 시에서는 청년을 위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질적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천 과천시장, 국토부 제1차관 만나 과천시식정보타운 공동주택 분양 협조 요청

과천시식정보타운 내 S2 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환 추진 철회 요청

과천시는 국토교통부에 과천시식정보타운 등 지역 내 공동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16일 과천시에 따르면, 김중천 과천시장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LS용산타워)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났다. 김중천 시장은 이 자리에서 "당초 일반분양으로 계획된 과천시식정보타운 S2블록의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전환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국토부에서 장기방직건축물 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인 갈현동641번지(구 우정병원 부지)의 공동주택 분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 김 시장은 과천시식정보타운 내 공동주택의 분양이 계속 지연되면서 우선 분양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입 수요가 많아져 지역 내 전세 물량 부족 및 가격 급등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갈현동 우정병원 부지 및 사업성 저하의 이유로 사업추체측에서 분양을 미루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S9블록 등의 공동주택 분양이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S2블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식정보타운 내 다른 블록의 공동주택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

대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간 일반분양을 기다려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정부 추진 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당초 계획된 지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갈현동 641번지(구 우정병원 부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역시, 공급성이 우선되는 사업의 기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분양가로 조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과천시 요청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 특히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송한준 의장,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1주년 기념 현화

"日성노에 피해자 존엄성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안산1)이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1주년을 맞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송한준 의장은 16일 제340회 정례회 4차 본회의의 개최에 앞서 의회 청사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김원기·안혜영 부의장 및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과 성노예 피해자들의 회생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헌화했다. 송 의장은 "민의를 전담인 경기도의회가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것은 1,360만 도민의 역사의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 소녀상은 말없는 웅변으로 전쟁과 폭력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장은 "성노예 생활로 유린당한 어머니들의 존엄성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는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며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에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도의원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건립한 조형물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1년 12월 14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소녀상이 설치된 것과 관련, 7주년을 맞은 지난해 12월 14일 제막식을 가졌다. 경기도의회는 평화의 소녀상을 국의 대표단과 청소년 등 의회 방문객의 필수 투어코스로 지정하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아울러 평화의 소녀상 건립 후 일본정부 경제전략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지난 8월에는 '일본 경제 침략 조치 규탄대회'를 실시하고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전략 TF를 발족하는 등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김진태 기자

군포, 12월 자동차세 납부 당부

군포시는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0,007건, 66억 9천만원을 부과하고,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군포시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령에 따라 차종별 배기량에 근거한 세액을 적용해 부과했으며, 다만 1월에 연납한 경우

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지로 및 ARS(1577-9885)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로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이메일)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12월 31일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포시 등록차량은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승용차 8만4천3백여대, 화물차 1만3천백여대 등, 모두 10만6천7백여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1년 전에 비해 0.38%, 4백여대 증가한 수치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2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정남 기자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수료식 개최

의정부시와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단장 김인숙)은 12월 12일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안전 전문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여러 재난현장 일선에서 봉사하는 자율방재단원들의 자신감과 전문

적인 안전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재단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과정 및 관리자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자율방재단 대장 및 대원 등 총 46명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통해 재난관리

의 종합적 이론과 인명 구조, 응급조치 등 재난현장에서 필수적인 교육까지 수강하여 재난 안전 민간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자연재난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전문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양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살피고 또 살피주세요!

문지마범죄에서 아동상범죄까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안전한 사회'를 만듭니다.

“당신 결의 안전지킴이”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실종이동찾기센터
182

그린이넷
스마트보안관

성범죄자
알림e

경북, 지역선도대학 금오공대 컨소시엄 기관 협력 활성화

경북 서부권 대학 발전협의회 포럼... 지역사회 발전 방안 모색

경상북도 16일 김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사업 참여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선도대학 금오공대 컨소시엄 기관 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상철 금오공대 총장을 비롯한 4개 대학 총장, 구미·김천·안동·영주·상주 5개 시군 부시장, 및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 등 공공기관 및 산업계 대

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11월 19일 이철우 도지사와 사업 참여 9개 대학의 총장이 '경상북도 지역선도대학 활성화와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이후 컨소시엄 기관 간 업무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역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방 공공기관 및 관련 산업계가 연계·협

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요 맞춤형 지역인재 공동양성과 취업지원으로 지역인재 양성·발전 여건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경북도는 지난 5월~ 6월, 5차례 지역대학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협력사업 발굴, 중앙부처 공모사업 공동대응 등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6월 교육부 지역선

도대학 육성사업 전국 공모에 금오공대 및 영남대 등 2개 대학과 사업 기획 구성 등 적극 협업을 통해 참여한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국비도 5년간 70억으로 최다 확보하여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이날 오후에는 '경북 서부권 대학 발전협의회 포럼'을 개최하여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추진 결과 공유와 서부권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포럼에는 도와 김천·구미·칠곡 등 3개 시군, 금오공대, 구미대, 경운대, 김천대, 한국폴리텍대, 경북 보건대 등 6개 참여대학이 참여했다. 금오공대 김원현 교수는 삼성전자, LG 등 뿌리기업의 지역 이탈, 구미공단 가동률 저하(65.9%),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학생들의 수도권 취업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청년 취업 문제

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경운대학교 최봉관 기획과장은 2020년 지역사회 공헌활동 계획을 통해 지역노인 대상 재활치료, 치매예방, 치·위생 관련 봉사활동 등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에 적극 공헌하는 방안 찾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구미대학교 김동욱 기획처장은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의 다양화로 지역의 직업교육 생태계 조성 및 맞춤형 평생직업 교

육 체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대학은 이제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고, 지역선도대학육성참여기관도 지역인재 육성과 채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 달라"며 "앞으로도 도에서는 지역대학 경쟁력강화, 공공기관 발굴·추진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형기 기자

안동, 노인·장애인위한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개관·정신요양시설 신축 등

노인과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올해 안동시 예산은 1천683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2.3%를 편성했다.

이는 노인·장애인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그 비를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이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안동시는 노인복지 분야에는 기반시설 정비, 기초연금 지급 확대,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사업추진,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종합복지관 신축을, 장애인복지 분야에는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충,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

▲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여가선용, 건강증진 등 지원

먼저, 노인복지 분야에는 1천1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들의 생활안정, 건강증진, 여가선용, 사회참여

를 지원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지난해보다 550여 명이 늘어난 28,600여 명으로 총 815억 원을 지원해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경로당 신축·정비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비 지원 등 노후여가문화와 생활환경 조성에는 71억 원을 지원해 527개 경로당에 전기·가스시설 점검 실시, 시설물 유지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비 보상을 포함한 책임보험 가입, 6개소 신축 및 176개소 보수, 활성화와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쾌적한 노인복지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경로과 재능을 연계한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사업에는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 2,714명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기반을 조성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의 기본생활보장을 위해 무료급식소 운영 및 식사·음료 배달사업에 6억 원을 투입

해 2,850명에게 지원했고, 시 노인회 운영지원에 4억 원, 장사문화 선진화 지원에 14억 원, 경로당지도자 교육 및 각종 노인체육대회 등 지원에 28억 원을 투입해 노인복지 증진 및 노년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이외에도 복지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기능보강 등을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에 81억 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등에 2억 원을 지원했으며, 보다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5억 원을 투입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도 개선했다.

또한, 노인 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에 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다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 빈틈없는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 장애인들의 활동 지원, 자립기반 조성, 사회참여 등 보장

장애인복지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79억 원 증액한 4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 장애인의

로비 지원 등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87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46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생활 안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등 33개소에 235억 원, 시설 기능보강에 54억 원을 지원해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 안정적인 주거생활 공간 제공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사회의 편견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읍면동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장애인 136명을 배치해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14개 장애인 단체에 1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장애인들 간의 소통과 재활 의욕 고취,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등에도 힘썼다. 안동시는 2020년도에는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개관 및 행복도우미사업 지속 추진, 정신요양시설 신축 등 안동시에서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안정적 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남형기 기자



초전면복지회관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전달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하였다.

성주군 초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 및 송년의 밤 행사

성주군 초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삼차봉, 공공위원장 이한규)는 12월 13일 오후부터 초전면 복지회관 다목적 강당에서 기관·사회단체장 및 후원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2019년 초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돌아보면서, 올해 한해 적극 참여한 협의체 위원들을 격려하고, 협의체 활동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초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따뜻한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특화사업(초전면발-고구마)으로 마련된 협의체 자체기금으로 난방보조용품(전기장판) 24점(250만원 상당) 준비하였으며, 그 외에도 뜻있는 분들이 기탁해주신 쌀, 라면, 이불, 내복,

김세트 등 450만원 상당의 지원물품들이 모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따뜻한겨울나기 지원물품들은 초전면 24개리 이장을 통해 초전면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세대에 전달됐다.

초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나눔봉사분과 이석기(초전면 어산리장)위원과 최준구(삼진건축)위원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으며, 발굴조사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연계활동 등 나눔봉사분과의 적극적인 활동이 두드러진 한해였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초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서로 소통하고 열성적인 활동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보기 좋으며, 나눔이 지역 문화를 자리잡기를 바라며,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성주 건설에도 더욱 힘을 보태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성달 기자

청송군, 관내 경로당

3개 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인구 교육

청송군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지역내 3개 고등학교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2019년 찾아가는 인구 교육'을 실시한다.

청송군은 매년 감소되는 인구와 저출생으로 인하여 지역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청소년들과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청송군과 (사)인구와미래정책연구소가 함께 주관한 이번 인구교육은 지역의 청소년들과 농한기 어르신들에게 인구전문강사들이 직접 우리나라 인구현황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 지역공동체 붕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강의했으며,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인구문제에 대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또한 어르신들에게는 자녀, 손주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운영회 청송군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인구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막연하게 생각하던 인구문제를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청송군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성달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2월 12일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5개 실국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조4천219억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40

억 원(0.99%)이 증액된 규모다. 증액 사유는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 경상경비 절감분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다.

이날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집행부에 기업투자촉진과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월사업 발생 사유는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 경상경비 절감분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예산안과 더불어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은 종료됐다. 박

현국(봉화) 위원장은 "올해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제조업 생산감소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한 해였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지역 현실을 고려해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했다"고 말하며, "2020년 경자년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부하고 발전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형기 기자



대한민국 농수산물식품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식품!
이제 aT가 농업인의 터전에서 농업인과 함께 그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창조농업, aT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한 변화
aT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대표전화 061-931-1114

의성군, 올해 공모사업 88건 선정

국·도비 822억 확보 '쾌거'

의성군은 올해 각종 공모사업에서 88건이 선정돼 역대 최대 규모인 국·도비 822억원(국비 664억, 도비 158억)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42건 308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의성군은 그동안 공모사업 선정률 제

고를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 대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다.

선정된 주요사업은 △지역 발전투자사업 118억 △도시재생 뉴딜사업 206억(의성읍 113억, 안계

면 93억) △생활 SOC 복합화사업 85억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59억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조성사업 57억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49억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84억(육산면, 춘산면, 안평면 각 28억) 등이다.

특히, 88건 중 25건이 문화·관광 분야로, '마을 미술 프로젝트사업',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등

3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특화된 관광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 부서가 전략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며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에 도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황성달 기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14일 공사 1층 대회의장에서 경북여행리포터 활동 보고회와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가지며 한 해 동안의 온라인 마케팅을 결산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온라인 마케팅 결산

경북여행리포터 활동 보고회·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는 지난 14일 공사 1층 대회의장에서 경북여행리포터 활동 보고회와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가지며 한 해 동안의 온라인 마케팅을 결산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2019년 경북여행리포터 27명, 경북여행리포터-Vlog단 20명, 중화권 경상북도 기자단 경유기 18명 총 65명의 기자단이 경북여행리포터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활동 경과 보고와 우수 리포터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활동 보고회에서는 10월부터 진행한 경북 커피사진 콘테스트와 영상 공모전 우수작도 함께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여행리포터와 경유기는 경북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모인 내·외국인 SNS 운영자로 구성돼 있으며, 2019년 3월부터 매일 경상북도 여행 기사와 사진, 동영상 등이 담긴 여행 콘텐츠를 제작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영상으로 경북여행의 매력을 전달하는 Vlog단을 신설해 총 65명이 활동했다.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는 경북나드리 홈페이지와 국내·외 SNS 채널의 주요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리포터 활동은 내·외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열정적인 활동은 공사가 2019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관광 부문 최우수상과 올해의 SNS 카카오토리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공사는 올해 리포터 활동을 바탕으로 최우수 리포터, 우수 리포터 등 총 5개 부문 17명에게 시상했다.

최우수 리포터로는 철곡 가산수피야 핑크플리 기사로 네이버 블로그 조희수 9만회를 돌파한 이상현 리포터(경북도 포항시)와 청송 닭불고기 맛집 탐방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조회 수 2200회를 돌파한 박문숙 리포터(경북도 안동시), 웨이보에서 경북의 매력의 주역으로 소개한 천위제 리포터(부산광역시)가 수상했다.

또한, 경북여행 영상공모전 대상 수상자인 외국인코리안팀을 비롯, 커피사진 콘테스트 1위인 이민서 씨 등 대상에서 관광 부문 최우수상과 올해의 SNS 카카오토리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영상과 사진 공모전은 참가자의

유튜브 및 개인 SNS 채널을 통해 경북의 매력적인 여행지를 홍보하고자 개최됐으며 수상작은 향후 경북관광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2019년에도 경북여행리포터의 활발한 활동으로 경북나드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경북의 여행 소식이 전 세계로 전해졌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공사는 앞으로도 경북여행리포터와 온라인 공모전 개최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새롭고 신선한 경북의 매력을 꾸준히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여행리포터의 활동은 경북나드리 블로그(<http://blog.naver.com/gbnadri>)를 비롯, 국내·외 경북나드리 SNS 채널과 중국 웨이보(<https://www.weibo.com/prideGyeongbuk>)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신규 경북여행리포터는 오는 2020년 2월 경북나드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이민석 기자

의성군, 경북도 평생교육 추진시책 평가 '대상'

평생학습 통합예약 사이트 구축·제7회 경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성공 개최

의성군이 경상북도가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경상북도 평생교육 추진시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과 우수 시책 추진 실적, 노력도의 3개 영역에서 △추진 조직 △비전 수립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국·도비 공모사업 실적 등 20여 개의 평가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시상식은 지난 13일 경주 컨벤션 리조트에서 개최된 '2019 경상북도 평생교육 성과 공유회'에서 열렸고, 이날 성과 공유회에는 도 내 시군

평생교육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2020년 사업 계획 토론도 함께 진행했으며, 의성군은 대상 수상과 더불어 '제7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결과 보고 등 그간의 성과 사례를 발표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인생 100세 시대, 군은 모든 군민이 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평생배움터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은 2017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래로 읍·면·군거리 학습관

보장을 위한 행복학습센터·성인 문해교육 등을 확대하고 관내 모든 교육 강좌를 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 평생학습 통합예약 사이트 구축사업 등을 실시해 군민들의 호응을 얻어 왔다.

특히, 10월4~6일 3일 간 의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7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군의 다양한 평생학습 면모를 알렸고, 나아가 경북의 평생학습 우수 사례를 전파·홍보함으로써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황성달 기자

안동시 도산면 이호창 씨 '2019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 최우수상

안동시 도산면에 사는 이호창 씨(72)가 지난 13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이호창 씨의 사과(품종 아리수)가 일반 과수 신품종 분야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상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안동시 도산면 단천리에 살고 있는 이호창 씨는 35년 간 1.3ha 규모의 사과를 재배해 오면서 연간 62톤의 사과를 생산, 2억여 원의 농업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역 농업 리더이다.

이번 대회에서 이호창 씨의 사과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업체,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외관 심사

와 계속 심사, 과원 현지 심사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GAP 농산물 인증을 받았으며, 친환경 퇴비 및 해수를 직접 바다에서 공수해 와 밭에 살포하는 등 친환경 재배로 건강한 토질과 안전한 사과 생산에 힘 쓴 결과, 올해 일반 과수 분야 신품종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의미를 더했다.

■남형기 기자

안동시, 전통 직조 기능 인력 양성 교육 작품 전시·수료식

안동시는 지난 5월부터 11월 말까지 7개월 간 진행된 '2019년 전통 직조 기능 인력 양성 교육'을 마치고 오는 12월19일 안동포타운에서 수료식을 가진다.

깊은 인력의 고령화와 기피 현상으로 인한 전통 직조 위기를 극복하고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안동포짜기의 전통 계승을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된 전통 직조 기능 인력 양성 교육은 올해로 네 번째 수료식을

개최하며, 교육에는 6명의 강사와 23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올해 전통 직조 기능 인력 양성 교육은 안동포 초급·고급반과 무삼반 과정 등 총 3개 반으로 나눠 전통 방식의 안동포와 무삼 짜기 과정을 진행했다.

특히, 안동포반을 초급반과 고급반으로 세분화, 보다 전문적인 과정과 쉽게 배워볼 수 있는 과정으로 구분해 모든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 했다. 아울러, 안동포의 현대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사 및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공예 교육을 한 달 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교육생들에 대한 수료증 수여와 함께 강사 및 교육생들이 직접 직조한 안동포·무삼 작품과 각종 공예 작품의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남형기 기자

경동나비엔 안동북부대리점, 노후 보일러 교체

경동나비엔 안동북부대리점 이진우 대표는 지난 13일 안동시청을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후보일러 10대를 교체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보일러 노후로 인해

평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경동나비엔 안동북부대리점은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웃돕기 성

금과 물품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진우 경동나비엔 안동북부대리점 대표는 "이번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맞아 약소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형기 기자

우리 가족의 모습은?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대화를 나눠봅시다.




온 가족이 함께 사용규칙을 만들고 관리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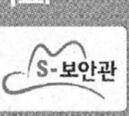
청소년 안심팩



올레 자녀폰 안심 (중독예방알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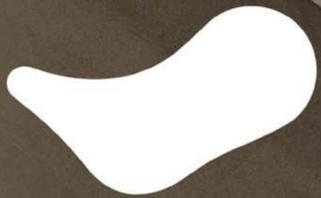


자녀폰 치킴이



스마트보안관

건전하고 절제된 스마트폰 사용습관, 자녀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L I F E
P L U S

때로는 도전을,
 때로는 안정을 거듭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보다 가치 있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삶을 마주하는 금융을 합니다
LIFE MEETS LIFE, LIFEPLUS



LIFEPLUS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이 함께합니다